

문화



# 연말 연극 공연 '골라보는 재미'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따뜻한 소극장뮤지컬, 코믹 퍼즐 추리극...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역 연극계가 연말 연시를 맞아 다양한 무대를 마련했다. 장르도 다양하고 공연 일정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등 장기 공연에 나서는 작품도 있다.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니 골라보는 재미를 만끽해 보자.

### ▲로맨틱 뮤지컬 '정인'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김은숙 작가가 대본을 쓴 '정인'은 이미 대학로에서 2천여회 이상 공연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광주 극단 연인과 아트컴퍼니 원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인'을 정극 형태로 무대에 올렸고, 이번엔 뮤지컬로 개작, 관객들을 만난다.

이혼남에 삼류영화배우인 여인과 학부도 면담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교사 정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다. 김종필·정숙희 씨가 주인공 역을 맡았으며 연출은 원광연씨다. 작곡가 배창희씨가 삽입곡 11곡을 작곡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무료 교환권 목포 순천 관객 버스로 일부 지급 등

정인 대학로서 2천여회 공연작 뮤지컬로 결혼연습 24살 차이 부부의 유쾌한 사랑 그 여자... 폭소 뒤에 감춰진 반전·긴장... 하루 유명 뮤지컬 갈라 형식으로 선보여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오는 23일부터 2010년 1월 3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티켓 가격 2만원(사전예매 15% 할인) 문의 062-369-5472.

▲유쾌한 사극이야기 '결혼연습' 연극 '라이어' 작가 레이 쿠니 원작으로 극단 DIC이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공무원 생활 18년차인 마흔 셋 남자 조지와 열아홉살 임산부 루이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우연히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게 된 두 사람. 우여곡절 끝에 조지는 루이스가 아이를 낳는 데 동행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윤희철·나운정·임훈석·이현기씨가 출연하며 연출은 정문희씨가 맡았다.

2010년 1월 31일(목~일요일)까지 공연일변지 소극장.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4-4328.

▲반전, 또 반전 '그 여자 사람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잘 알려진 로베르 토마 원작으로 2006~2007년 상연돼 많은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다.

실종된 아내가 10여일 만에 돌아왔지만 차민수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 윤혜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차민수의 아내라고 주장하고,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후 많은 증인이 등장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진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폭소 뒤에 감춰진 긴장감, 퍼즐을 맞추듯 거듭되는 반전 등 유쾌한 무대다.

한편 '하루'와 '그 여자 사람들'은 2명이 두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패키지 관람권(5만원)도 판매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학로에서 활동중인 광주 출신 배우 송정우가 차민수 역으로 출연하며 이기인·정경아·노희설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작품으로 연출은 이현원씨. 17~27일 씨다아트홀 티켓가격 2만원. 문의 062-521-7555.

▲하루

국내외 유명 뮤지컬감독을 갈라 형식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딱 하루 전생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겁고 애절한 하루를 보내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중 '대성당의 시대', '페임' 중 '페임', '그리스' 중 '섬머나잇' 등 10개 작품에서 16개 노래를 부른다.

박영진 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으로 김하정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안정열 남궁인 김소아씨 등이 출연한다. 23~27일 문예정터. 티켓가격 2만원. 문의 070-7526-2808.

한편 '하루'와 '그 여자 사람들'은 2명이 두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패키지 관람권(5만원)도 판매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림**

## 광주일보 신춘문에 내일 마감

**단편소설·시·동화**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접수마감: 2009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호)
- 보내실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062-220-0680)
- 기타: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 시: 3~5편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고,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인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 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당선작은 2010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 산수화에 담은 소방차·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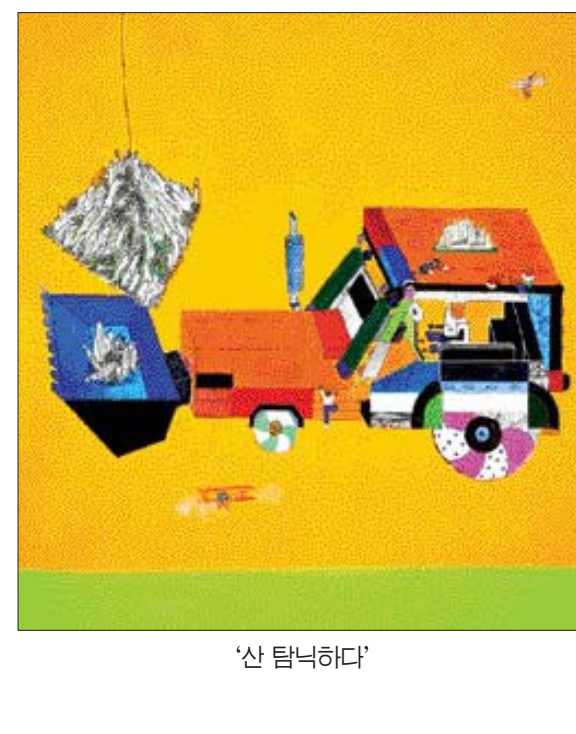
최미연 개인전, 19일까지 나인갤러리

산수화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한국화가 최미연씨가 오는 19일까지 광주 나인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산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독특한 조형미로 그려낸 신작을 선보인다. 화려한 색으로 표현된 산을 배경으로 장난감 블록 '레고'에 등장하는 소방차와 캐릭터를 함께 그려 넣어 요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산수화에 로켓과 우주선을 소재로 삼는 등 이색적인 연출이 눈에 띈다.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오른아트센터, 청년의 집전, 미술감상실전 등에 출품했다. 062-232-2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산 탐방하다'

## '광주야, 사랑해' 사진전

27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27일까지 금남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광주의 다양한 표정을 사진에 담은 '광주야, 사랑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최고봉, 김은와, 서영실, 양소남, 안희주, 조은희 등이 참여해 금남로와 양동시장 등 광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안희주씨는 시장 노점상의 일상을 담담하게 형상화한 '광주'를 선보이고, 최고봉씨는 집회 현장을 사실적으로 포착한 '우리 옷자'를 출품한다. 또 김은와씨는 옛 전남도청 시계탑의 시간 변화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 보는 '32분, 31분'을 선보인다.

문의 062-230-018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양소남 작 '빛'

## 남도불교문화연구회 학술대회·전시회

15일 전남대 응지관

남도불교문화연구회(회장 정선중)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15일 오후 2시 전남대 응지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다.

'남도 불교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영호 교수(단국대 석주선박물관장)가 '남도 석조미술문화의 특징'에

## '박물관·미술관 연계 어린이교육' 워크숍

15일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문화에교육지원센터와 국립광주박물관은 15일 오후 3시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박물관·미술관 연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워크숍을 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은미(국립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

사), 이영신(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씨 등이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교육 및 자원의 중요성', '어린이박물관 전시 개발 사례'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료는 장원익(남도향토음식 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하며 국립광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체험 행사도 갖는다. 문의 062-670-57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비**

# 大山프리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살판해 **프리모닝** MAYER

585-1000 '사람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길피 50만원~**

최신기술로 제작된 프리모닝의 인공모를 드물게도

귀하를 훌륭한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문의: 062-271-5858, 070-8822-1111

www.primorning.com

**한빛전기상업회사**

겨울철 **전기화재**, 방심은 순간이지만 상사는 평생 갑니다

KECO